

六、傳陞伯將軍墓(論山郡 부적面 신봉리)所在로서 洪思俊氏發掘報告……不問에 附하기로 한다.

七、昌寧述亭里三層石塔部分破壞의 件: 輕微하므로 現狀대로 두기로 한다. 其他

金元龍委員發言…芬皇寺北方石佛發掘報告(廢博移管)
黃壽永委員發言…浮石寺國寶建物防火對策必要(指示키로 한다)

扶餘陵山里古墳補土工事(李弘植委員調査키로 한다)

九、工事監督選定

水原城(長安門)工事……金允基委員을 監督官으로 한다.

◎ 聖德王陵重修完工

그사이 朴日薰氏 監督으로 進行中이던 封墳 및 龜跌의 解體와 整理는 一月十七日完了되었다. 龜跌는 元來의 石造基壇을 復元하였는바 碑片 六個(文字는 「政」「武」등 各一字인바 磨滅尤甚)와 蓮花圓瓦片一 螭首片(推定)一 등이 發見되었다.

◎ 芬皇寺石佛群의 移管

去年末 金元龍씨가 指揮한 同發掘品 全部는 一月八日 慶州博物館에 移管되 었는바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番號一—四 石佛坐像 計 八軀

六一九 石佛坐像 計 八軀

五 觀音立像(全高一m六八cm 台幅五八cm)

十 石佛光背一

十一、十四、 石造浮彫坐像二、(光背와 一石造)

十二、十三、十五、石佛坐像破片 三

十七 佛頭片 六

十六 光背破片 二

十八 仰花 一

十九 鷗尾破片 一

二十 佛身破片 二

計 二十七點

◎ 石窟庵報告書作成

이 報告書作成을 위하여 黃壽永 柳海宗 申榮勳 鄭明鎬 孫龍文 諸氏는 一月九일부터 三十一일까지 榮州 浮石寺에서 合宿하여 書類、圖面 등을 整理한 후 二月一日부터 七日까지 다시 石窟現場에서 作業을 계속하였는바 이에 金正基 金東賢 兩氏도 參與하였다.

◎ 蔚山市東竺寺 調査

南牧里 東竺寺 遺物에 對하여 朴日薰氏는 昨年十二月十二日 調査 三層石塔 等 古代遺構가 確認되었는바 앞으로 本誌에 紹介豫定

◎ 石塔調査

昨年末 市內元曉路一街一八의 一二 金野松氏(五三才)宅에서 韓基澤博士의 案 內로 同人 文甲洙 鄭永鎬 兩氏에 依하여 調査되었다. 總高三·一m인데 二層基壇上에 五層의 塔身이 놓였다. 基壇部에 若干의 磨痕과 補材가 있을뿐 李朝代의 端雅한 石塔이라 하겠다.

— 第七卷 第三號 通卷六十八號 —

扶餘 陵山里 一古墳의 調査(史蹟 第十五號)

洪 思 俊

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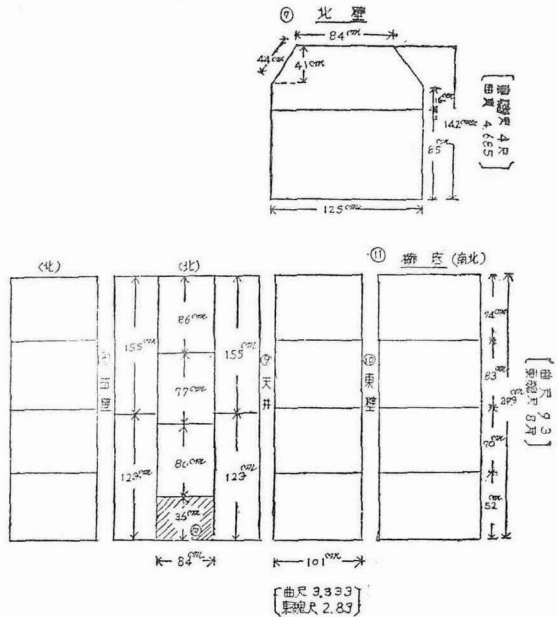
扶餘東十里許에 百濟王陵으로 現在 六基가(東上, 下 中上下 西上下) 있는데 昨年 十二月中旬부터 補築工事が 始作 現今도 施工中, 이 六基의 中上塚에서 五十m 北使山의 地點을 부루도자로 土壤을 整理中 砂土質에 서 粘土層이 發見되어 이 層을 따라 올라가 보니 板石二枚에 入口가 閉塞된것을 工役人에게서 連絡이 있어 바로 서울 文化財管理局에 通報 하여 서울大 金元龍教授가 來扶 二月十四日에 發掘作業을 進行하였다.

를 掘鑿하고 板石들을 제 尺數에 맞추어 陵墓를 築造하였던 것을 알겠다.

먼저 羨道入口를 閉塞한 板石은 左右二枚(圖面①)이며 羨道の 上, 下 左, 右 板石은 幅이 各 五七 cm로 遺物이 一點도 없었으며 空間이었다. 다음 羨道에서 玄室의 入口는 一枚板石(圖面④)으로 閉閉하였는데 壁畫 古墳같이 强灰로 間隔을 메꾸지는 아니하였다. 이 板石門을 撤去하기 前에는 完全密閉되었을에서 内部遺物保存에 希望을 걸어 보았으나 板石을 撤去하여 보니 玄室門에 土砂가 上部까지 充滿되었다. 아마도 盜掘한時 期가 오래된 關係로 長久한 雨水에서 흘러들어간 土砂로 보였다.

玄室門에서 土砂를 除去하다보니 土砂中間部에서 이미 金絲와 木炭片 또는 金箔片 등이 混出되기가 始作됨으로 盜掘이 된것을 짐작하고 먼저 上部 土砂를 撤去 中間部以下부터 注意깊게 注目하여 일일이 排出土를 點檢하면서 金絲, 金箔片을 收拾하여 가는 동안 玄室底面에서는 木棺片이

石室實測圖(1966. 2. 14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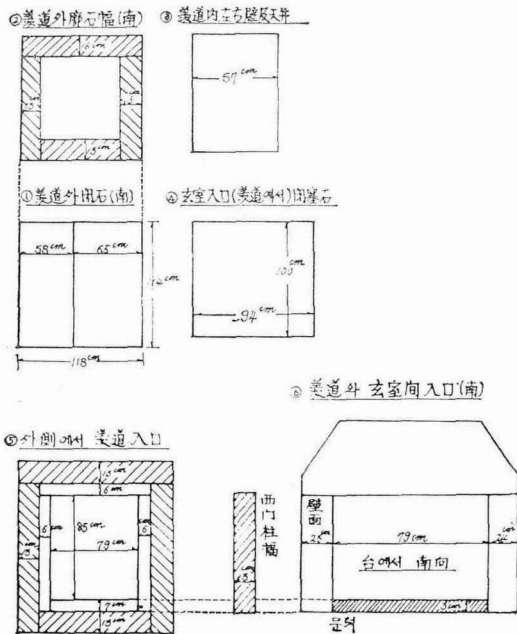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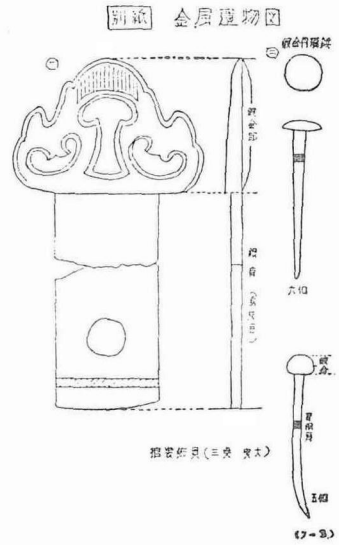
粘土層이 있는 곳은 發見된 古塚入口에서 南向 하여 있는데 陵 築造石材를 運搬하기爲 한 通道로 보며 이 古塚의 石槨이 있는 위치는 山腹 地表下 2m 로 砂質土 壤에 地下

出土되고 間或 木棺에 박았던 鐵釘, 靑銅製 鍍金圓頭 鍍金具(圖面別紙)도 出土되었다. 木棺片에는 漆을 칠한 木片과 木棺底面이 玄室底面과 마주다은 木棺片에서는 金箔을 입힌 木片도 나왔음으로 木棺全面에 金箔을 입힌 것을 알겠다.

石槨内部의 土砂를 除去後 玄室을 살펴보면 梯形石室로 構成되었는데 左右의 板石壁이 各四枚(圖⑩⑧) 槨底石 四枚(圖⑪) 天井左右側橫石 이 各二枚와 天井石 四枚(圖⑨)로써 玄室을 構築한 것을 알겠다. 玄室 天井南側一枚石이 없음을 보아서 이곳으로 盜掘된 것을 알겠다. 玄室 지금까지의 出土된 遺物들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 一、棺裝飾金具 五、十一片
 - 一、鍍金圓頭 鍍金 五
 - 一、靑銅 鍍金 六
 - 一、鐵 鍍金 二、
 - 一、金箔片 一g
 - 一、木炭片 若干
 - 一、金絲 四g
 - 一、木棺片 多數
- 別紙實大圖參照





三

이 出土 遺物들을 綜合考察하여 보면 金絲는 衣裳에 使用되었던 것을 알겠으며 金箔片은 上述한 바와 같이 木棺外表全面에 부쳤던 것을 짐작 하겠고 鐵鎚은 木棺下板에 靑銅鍍과 鍍金圓頭鎚은 木棺左右와 上部에 박 지 않았던가 推測된다. 다음에 棺裝飾金具는 百濟王陵에서도 이미 四枚 가 出土되었으나 어디다 使用한 것인지 未知數이었다. 그런데 出土된 金具가 完形에 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形態가 出現되었다. 이 金具는 木棺 天蓋를 덮을 적에 開口된 木棺에 裝飾金具에 鍍金되지 않은 部分 까지 插入하여 棺內에서 固定시키고 天蓋板은 그 金具가 들어가는 部分 만 削出하며 雲形文은 天蓋厚만 차지 되지 않았던가 憶測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木炭片이 出土되는 데는 아마도 盜掘時에 쓰여진 것이 더 有力視되 는 것이다. 그리고 玄室除土作業에서 百濟土器片이 一點이 나왔다.

이 古墳의 位置는 六基墳의 上位에 있으며 앞에 보이는 展望이 廣闊 하고 白馬江과 周圍山勢가 一眸에 들어오는 風景이며 左右의 靑龍 白虎 山脈은 마치 風水說을 加味한 듯한 것과 背後의 山勢 또한 壯重한 來龍 은 正南向한 王陵을 構築하게 하였다.

끝으로 添記할 것은 東下塚과 中下塚 中間線若干後側에서도 □形石槨 이 發見되었는데 羨道가 없는 玄室은 長이 一·七四cm 高九〇cm 幅七六 cm 이었고 內部에서는 다만 鍍金銀 五個만이(陳列中) 出土되었고 其他遺

物은 없었다. 그런데 壙內는 棺臺가 없고 다만 方一·二尺의 埽이 二列 로 깔리되 各 五枚씩으로 되고 南方에는 下水溝로 볼 수 있는 土層의 깊이가 七·二〇cm 이었다고 함은 이 古墳도 地下二m에 묻혀 있었음을 밝혀 둔다. (六六·二一·一八)

鳴鳳寺 慈寂禪師 凌雲塔碑

— 新羅五岳調查記 第五 —

秦 弘 燮

新羅 五岳 學術調查 太白山地區 第二次調查의 最終行程으로 鳴鳳寺에 到着한 것이 二月二十四日이었다. 이번 調査에는 降雪로 因하여 調査 隊員은 적지 않아 苦楚를 겪었지만 筆者와 崔淳雨、羅炳旭、兩委員은 二十四日 榮州에서 先發 調査隊員과 合流、醴泉을 經由하여 殘雪을 밟 으며 上里面事務所所在地에서 徒歩로 二十里 절에 到着한 것은 午後八時 頃이었다.

鳴鳳寺는 慶北 榮州郡 上里面 鳴鳳里에 있다. 碑文 冒頭에 「高麗國尙 州 鳴鳳山境 淸禪院」이라고 있어 寺名은 境淸禪院이지만 主山이 鳴鳳山이 므로 山名을 따서 寺名으로 俗稱한 모양이다. 背後의 山峰에는 李朝文宗 의 胎室이 있었으나 여기 使用되었던 石物은 寺內築臺에 利用된 것이 相當히 많고 胎室

現 大雄殿 옆으로 移置되었다. 碑는 寺後의 小丘 에 세워져 있고 螭 首와 龜趺를 具存하 고 있다. 龜趺는 碑 座附近까지 埋沒되 어 全貌를 알 수 없

